

## 재미교포 샘 킴, NHL 코치로 입성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아이스하키 대표팀 비디오 코치로 일했던 재미교포 샘 킴이 세계 최고의 무대인 북미 아이스하키리그(NHL) 토론토 메이플리프스에 비디오 분석관으로 영입됐다.

앞서 한국계 백지선 현 한국 아이스하키팀 대표와 박용수 전 대표팀 코치가 NHL 무대에서 선수로 뛰는 적은 있지만 이들도 NHL 팀의 코치로는 합류한 적이 없다.

뉴욕에서 태어난 샘 킴은 고교까지 아이스하키 선수로 뛰었고, 보스턴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했다. 하지만 아이스하키에 대한 열정은 멈추지 않았다. 대학 시절 아이스하키팀의 자원봉사자로 비디오 분석을 시작했고, 2007년 NHL 뉴욕 아일랜더스 구단에 인턴으로 들어가 마스코트 탈을 쓰며 팬들을 즐겁게 했다.

부모의 반대에도 링크를 떠나지 않은 그는 학업



▲ 한국 아이스하키대표팀 코치 시절의 샘 킴. 사진=대한아이스하키�협회

을 병행해 2012년 매사추세츠 주립대에서 스포츠 매니지먼트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2016년부터 한국 아이스하키 대표팀 백지선 감독의 요청으로 한국 남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의 비디오 코치로 합류해 평창올림픽까지 함께 했다.

2018 평창올림픽을 끝으로 미국으로 돌아온 그는 AHL(NHL의 하부리그) 베이커스필드 콘도스의 비디오 코치로 두 시즌을 보냈다. 당시에도 그의 이적은 뉴스가 됐다. 그리고 마침내 보통 리그 선수 출신에게 허락되는 NHL의 비디오 코치 직을 따냈다.

샘 킴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건 사람들이 나를 정말 좋은 사람으로 기억한다는 점”이라며 “일을 잘한다는 것은 일부분이다. 사람들이 내 이름을 들을 때마다 나를 좋은 사람으로 기억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 저스틴 토머스, 미프로골프협회 ‘올해의 선수’



▲ 저스틴 토머스. 사진=pgatour.com

저스틴 토머스가 미국남자프로골프협회(PGA of America)가 주는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했다.

미국남자프로골프협회는 9일 “저스틴 토머스가 2017년에 이어 두 번째로 올해의 선수가 됐다.” 고 발표했다.

미국프로골프협회 올해의 선수는 한 해 동안 승수와 평균 타수, 상금 등을 점수로 환산해 가장 많은 득점을 올린 선수를 가려낸다. 토머스는 2019-2020시즌 PGA 투어에서 3승을 거두며 30점을 따냈고, 상금 1위로 20점, 평균 타수 3위로 16점을 더해 총 66점을 기록했다.

2위는 투어 2승으로 20점, 상금과 평균 타수 2위로 총 36점을 더해 56점을 획득 온 람(26·스페인)이 차지했다.

## 더닝 MLB 첫승 “한국 대표팀 뛰고 싶다”



▲ 한국계 2세 투수 데인 더닝. 사진=mlb.com 캡처, 편집

한국계 2세 투수인 데인 더닝(26·시카고 화이트삭스)이 MLB 데뷔 첫 승리를 거뒀다. 그는 경기 뒤 언론과의 인터뷰서 “한국 대표팀으로 뛰고 싶다.” 고 밝히, 성사될 경우 한국 야구 대표팀 전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한겨레’에 따르면 더닝은 전날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PNC파크에서 열린 피츠버그 파이리츠와 원정경기서 선발로 올라 6이닝 동안 3피안타·1볼넷·3탈삼진·무실점을 기록하는 호투로 팀의 8-1 승리를 이끌며 메이저리그 첫승을 기록했다.

한국인 어머니(정미수·57)와 미국인 아버지(존 더닝·57) 사이에서 태어난 더닝은 플로리다 대학을 거쳐 2016년 신인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29위로 워싱턴 내셔널스에 입단했다. 하지만 몇 달 뒤 화이트삭스로 트레이드되면서 줄곧 마이너리그 활동을 해왔다. 지난해에는 팔꿈치 수술을 받으며 시즌 전체를 뛰지 못하는 불운을 겪었다.

올 시즌도 코로나19 사태로 경기를 뛰지 못할 상황이었으나, 지난달 20일 빅리그로 승격되면서 기회를 잡았다. 그동안 3번을 선발 등판했으나 불펜진이 흔들리면서 승리를 챙기지 못했고, 네 번째 도전 끝에 마침내 승리를 따냈다.

그는 경기 뒤 “한국 대표팀 일원으로 국제대회에 출전하고 싶다. 기회가 된다면 한국 프로야구 케이비오(KBO) 리그에서도 뛰고 싶다.” 고 말했다.

현재 우완 정통과 선발 투수가 약한 한국 야구 대표팀에 더닝이 가세하면 전력 상승에 도움이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런 까닭에 향후 더닝의 활약에 따라 한국 야구 대표팀 합류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통증 전문  
치료 병원

# 오렌지[백] 한방·척추병원

Baek Chiropractic-Acupuncture, Inc

“27년의 임상경험과 한방/척추의 정확한 진단”으로, 통증의 원인을 파악하고 진료해 드립니다. 침, 부항, 한약/보약, 척추교정, 엑스레이, 각종물리치료를 모두 한곳에서 치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메디케어

지정병원 승인필요 (서울/세종/대한)  
센트럴 헬스  
이지 초이스  
지정병원 승인필요 없음  
Scan, Care 1st  
Humana, Blue cross  
Blue Shield, Kaiser  
일반 메디케어 파트 B

### 각종 보험

오바마 케어  
Health Net, Blue cross  
Blue Shield, Kaiser  
Aetna, Cigna  
United Health Care  
HMO- 주치의 허가 또는 승인 없이도  
치료가능합니다  
\*예외가 있으니 전화 확인 요망

### 교통사고

사고 보험 처리 도와드립니다.

무료 상담!  
전화주세요!

### 진료 내용

두통, 어깨, 목, 허리, 무릎, 발목, 저림, 오십견, 안면마비, 우울증, 수면장애, 감기, 갱년기 증상 등

진료시간: 월~금 9am~6pm  
화 1pm~6pm/토 9am~12pm

예약/상담 714.530.7001

9681 Garden Grove Bl., Suite 101  
Garden Grove, CA 92844(모란각 식당 옆)



Dr. 백사론  
한의원, 척추신경의사  
SCU 척추 의대 졸업  
South Baylo 한의대 졸업

\* 그 외 보험도 전화로 확인해 드립니다. (보험 없으신 분들을 위한 특별 플랜도 있습니다.)